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이후 육류 소비 변화

■ 방사능 오염수 누출 보도(13. 8) 이후에 수산물 소비가 큰 폭 감소

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누출 보도 이후 수산물 소비량을 줄였다는 응답자가 521명으로 전체의 77.5%를 차지하였음

표1. 방사능 오염수 누출 보도 이후의 수산물 소비 행태

설문내용	빈도	비중(%)
수산물 소비량을 줄였다	512	77.5
수산물 소비량을 늘렸다	1	0.2
수산물 소비량은 변동 없다	129	19.5
평소에 수산물을 먹지 않는다	19	2.9
합 계	661	100.0

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육류 소비대체 비중은 40%로 높은 편임

수산물 소비량을 줄였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육류 소비량을 늘렸다고 응답한 빈도는 전체 응답자의 40.1%인 204명으로 조사되었음

표2.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육류 소비대체 빈도

설문내용	빈도	비중(%)
수산물 소비량을 줄이고 육류 소비량을 늘렸다	204	40.1
육류 소비량은 변화 없고 수산물 소비량만 줄였다	274	53.8
수산물 소비량과 육류 소비량 모두 줄였다	31	6.1
합 계	509	100.0

■ 대체육류 소비자 선호도는 국산돼지고기, 한우고기, 닭고기 순

수산물 소비를 감소시킨 응답자 가운데 대체 육류 소비 선호도를 살펴보면, 국산 돼지고기가 40.1%로 가장 많았고 한우고기 28.7%, 닭고기 17.9%, 오리고기 6.4% 순으로 나타났음

표3. 수산물 대체 육류의 평균 수요 증가율

국산 돼지고기	닭고기	한우	오리고기	수입 쇠고기	수입 돼지고기
10.3%	7.4%	6.0%	4.5%	2.2%	0.8%

■ 시사점 : 식품안정성 모니터링 지속, 철저한 방역을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

(*출처 KREI 농업관측센터 농정포커스 제77호) 양계